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하는 많은 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어떨 때는 의미도 알지 못하고 혹은 어떨 때는 습관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그 말들이 직접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말의 축복과 무게에 대해서 한번 깊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본문이 말하는가?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들이 취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 당신의 믿음은 귀신들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그렇기에 당신의 말은 축복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말의 무게를 걸고 사용하는가? 아는 도전이다. 당신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가? 오늘 본문은 알과 행함을 나눌 수 없음을 말하며 귀신도 많은 지식(알)을 가지고 있음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의 알은 당신의 삶 가운데 충분히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기에 의미 없는 말들과 나도 믿지 않는 이야기들을 남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당신의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참된 말, 마음을 담은 말들로 축복을 나누는 도구가 되길 기도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거짓증거 함의 또 다른 형태는 우리 속에 시기와 다툼이 근거가 된 말들과 행동들이다. 본문은 이것을 위로부터 난 것과 땅위의 것으로 이것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깊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때는 언제인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지혜는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빚는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어떤 것이며 어떤 결과를 빚는가?

우리는 종종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예를 들자면 예배나 기도 큐티...)은 위로부터 난 것이고 세상적인 것(예를 들면 사업이나 공부 연애...)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위로부터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태도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가 동기가 된 것 그것은 아무리 종교적인 영역의 것이라고 할찌라도 세상적인 것이 라는 것이다. 당신과 나는 그런 면에서 이 땅 가운데서 확목케 하도록 부름 받았고 확목케 함을 통하여 '의의 열매' 를 맺어야 한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이 이런 하늘로 난 지혜로 세상을 확목케 하는 삶이 되길 축복한다.

큐비 위

너희 몸의 지혜와 용역이 영혼의
후에 득함 거기와 사물이 영혼에
대하여 영혼의 영혼이 영혼의
지혜는 영혼의 영혼의 영혼의
자들로써 영혼의 영혼의 영혼

지혜를 지혜의 영혼의 영혼의
영혼을 영혼의 영혼의 영혼의
영혼의 영혼의 영혼의 영혼의
영혼의 영혼의 영혼의 영혼의

우리가 지혜의 영혼의 영혼의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영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우리는 종종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것(예를 들면 /
오늘 본문은 그것이 위로
문제라고 설명한다. 우리
것이라고 할 때라도 세상
확목케 하도록 부름 받았
당신의 삶이 어떤 영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직분을 바로 감당하는 일이 적극적으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않는 길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발견하고 이 직분을 감당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라.

이 절차를 따라 바울이 갖게 된 위치는 무엇이며 그가 명령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바울이 설명하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취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심각한가를 오늘 비유는 보여준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행한 행동의 심각성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내가 그 결과의 참혹함에 대해서는 얼마나 받기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심판은 죄의 마땅한 결과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상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진멸됨' 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한다' 는 바울의 고백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와 같이 묵상되어야 할 말씀이다.